

주 제 발 표 Ⅱ

천연염색과 전통미감

김 정 화

천연염료전문지도연구회·영천시농업기술센터

1. 서 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색채론은 음양오행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어 방위를 따라 정색인 오방(五防)색과 간색인 오간색으로 구분되어 있다. 천연염색에서 오방색이 중요한 이유는 오방색을 다룰 줄 알게 되면 모든 색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오방(五防)이란 중앙 즉 중심을 포함하여 사방(四防)을 말하는데 고정된 한 방향이라기 보다는 순환이라는 개념이 내재되어 있어 상호작용에 의하여 상생이 되기도 하고 상극이 되기도 한다. 오행사상에 의한 색채의 중심은 황색이고 동은 청, 남은 적, 서는 백, 북은 흑으로 나뉜다. 오방의 색상이 왜 이렇게 정의되게 되었는가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일이지만 이 색상들을 잘 살펴보면 서양에서 말하는 색상의 근간인 적, 청, 황의 삼원색과 무채색인 흑, 백이 일치한다. 이는 우리조상들의 색채관이 사물의 이치에 바탕을 둔 깊은 궁구에 의한 것이어서 상당히 합리적이란 걸 이해하게 된다.

오방색의 중심이 되는 황색은 염제가 다양하고 염색법이 손쉬운 편이지만, 적, 청, 흑은 염제의 종류가 적다. 적, 청, 흑의 삼색을 제대로 해내려면 오랜 시간 염색을 해 봐야만 가능한 일이다.

1856년 영국의 화학자 퍼킨이 자주색염료를 합성하는 방법을 알게 된 이후 사라져 간 천연염색이 세기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서서히 고개를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공해가 없는 염색공정, 편안한 자연색감, 재현이 안되는 심미성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에 앞서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창조적 욕구 때문이라고 본다.

손을 가진 우리는 손으로 무엇을 만든다는 행위를 하는 그 순간 '보다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라는 예술적 감성이 발동하게 된다. 남이 다 만들어 놓은 색으로 무엇을 표현해 보는 것에는, 그것을 만든 이들의 틀 속에 자신이 들어가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 색(물감, 염료)도 공장에서 생산되면서 기성품이 되어버렸고 기성품이 가진 한계를 이제는 서서히 느끼기 시작한 탓인 것이다.

늘푸른 나무라도 계절에 따라 색이 다르다. 보이는 빛깔을 잘 관찰하면 계절이나 사람의 심상이 눈에 보인다. 봄이면 노르스민 색이 먼저 오르다가 점차 연두빛을 띤 녹색이 된다. 여름엔 청색이 바치는 녹색, 가을은 누른 끼가 다분하고 겨울에는 검은 빛이 많은 녹색이다.

우리가 보는 자연의 색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색과 다른 것이다. 이에 반해 내가 만들어 쓰는 천연염료는 우리가 보는 색과 거의 비슷하다. 그것을 계속 만지노라면 우리는 색의 참모습, 속내를 알 수 있게 되고 안다는 것으로 살아있는 색깔의 참된 기쁨을 맛보는 것이다.

본 글은 그동안 염색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생각한 오방색을 중심으로한 각 염제별 전통적 색감과 특성을 알아보고 전통미감을 살리는 몇 가지의 염색법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2. 염제별 색감과 염색법

(1) 황색계

가. 대황

전통적인 색채론에 오방색이 있다. 오방색의 한가운데에는 황색이 자리한다. 왜 황색인가

는 구구한 설이 있어 접어두기로 하되, 노랑을 황(黃)이라 표현했다면 황중에서도 대황(大黃)이라 한 이 식물의 뿌리 색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전통색채의 표준화를 논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조상들이 지칭했던 색채의 실체를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서양식 색상, 즉 화학물감의 색채자료로 우리 전통색을 표준화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천연염색이 다시 우리에게 다가온 시간은 짧다.

대황은 냇가 발둑에 흔한 여러해살이 식물이었으나, 지금은 외래 귀화식물에 밀려나 야생상태의 것은 찾기가 쉽지 않다. 야생 대황으로 염색한 천은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짙어진다. 견재상에서 구한 것으로 염색할 경우는 일반적인 열탕추출법으로 하면 되는 데 대황은 다색성 염재여서 매염제에 따라 다른 색을 얻을 수 있다.

나. 치자

특별한 매염제 없이도 물이 잘 드는 치자는 색이 맑고 진하여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써오던 황색염료이다. 하지만 치자로 염색한 직물은 한 방울의 물, 한 줄기의 빛과 바람에도 명을 다투니 물이 잘 든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님에 문제가 있다.

요즘엔 물들이는 이와 옷 입는 이가 다르므로 염색이 아주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으나 옛 여인네들은 옷을 세탁하고 난 뒤에는 항상 새로 물을 들여 입었다. 치자 염색은 염색과정이 단순하다. 따라서 색을 먹이거나 빼는 일이 쉬워 누구든 쉽게 할 수 있는 염재이다.

식초에는 맑고 진한 노란색이, 철장액에서는 약간 녹색을 띤 노란색이 된다. 국산 치자가 색이 맑고 깨끗하다. 전통적으로는 쌀뜨물로 매염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효과가 검증된 바는 없다. 염색을 끝내고 난 뒤에는 반드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헹궈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빛이나 마찰에 견뢰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옷을 버리게 된다.

(2) 적색계

적색의 경우 소목, 홍화, 꼭두서니로 주로 물을 들였는데 이중 소목은 옛날부터 수입품에 의존했고 나머지 두가지 염재는 염료효율에 비하여 염재의 가격이 비싼 편이다. 또한 세 가지 염재 모두 탈색, 변색이 심하여 적색 염직물의 값이 청색직물에 비하여 3배가 넘는 값에 거래되었다는 기록도 보인다(정조 때의 「가례도감」).

적색을 지칭하는 색상 명이 염재에 따라 다르고(대홍, 진홍, 목홍, 토홍 등) 염재의 성장환경, 추출조건, 염색방법에 따라 아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조상들이 지칭한 적색의 색감을 제대로 재현해 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재현해 내었다 하더라도 어느 색이 가장 완성도가 높은 적색이라고 말할 것인지가 문제다. 또한 오방색의 정확한 색채 기호를 서양식의 색상환, 즉 화학염료로 정리된 색채 자료로 정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오방색의 적색은 전통적인 방법을 근간으로 하여 작업한 것을 가지고 유추해야 할 것이다.

가. 홍화

홍화는 6~7월에 꽃이 피는데 처음 필 때는 노란색이다가 차츰 주홍빛이 나는 빨간색이 된다. 노란 꽃잎도 말리면 붉은 색이 된다. 염료로 쓸 홍화는 꽃잎이 노란색에서 붉은 색으로 갈 무렵 이른 아침에 꽃잎만 따서 그늘에 말리거나, 생 꽃잎을 들호박 같은데다 찢어서 홍떡을 만들어 말려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염료로 이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꽃잎을 물에 담가 수용성 색소를 먼저 빼버린 다음, 물에 용해되지 않는 페놀성 물질인 붉은 색소를 효소의 작용으로 산화시켜 알카리로 우려내고 산을 가하면 붉은 색으로 발색된다. 홍화염을 할 때 먼저 추출되는 황색소는 견뢰도가 나빠 직물염색에는 좋지 않으나 방충성이 있다고 알려져 종이염색에 쓰인다.

홍화에 대한 옛 글 중 「천공개물(최주 역, 전통문화사)」 염색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화병의 제법 ; 이슬을 머금은 채로 딴 홍화는 잘 찢어 물로 씻고 포대에 넣어 황즙을 짜낸다. 다시 찢어서 이미 발효시킨 좁쌀이나 쌀뜨물로 씻어 포대에 넣어 즙을 짠다. 제비쑥으로 하룻밤을 덮어두었다가 얇은 떡으로 빚어 그늘에서 말린 후 간직한다. 이런 염색법을 터득하였기에 옷을 산뜻한 성홍색으로 물들일 수가 있다. 홍화로 물들인 종이는 경사에 쓴다. 이것도 반드시 이런 떡으로 염색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혀 물들일 수 없다.”

홍화로 물들인 적색을 대홍, 선홍, 진홍이라 하며 이러한 색은 제철에 따서 위의 제법대로 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생 꽃잎으로 해본 결과 주홍에서 선홍까지 색이 맑고 깊어 견재를 쓰는 것과는 그 맛이 판이하게 달랐다.

수입약재로 판매되는 견재는 고온건조, 부패방지용 첨가제가 많아 본래의 색을 내기 힘드나 모시는 꽃 분홍색, 명주에는 주홍색이 된다. 생 꽃잎을 찢어서 하면 진홍이 된다. 매염재를 쓸 경우에는 다양한 색상도 얻을 수 있다.

나. 소목

소목은 서기 3~4세기의 서진 시대나 그 이전부터 염료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고대 때부터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 수입하여 썼다.

소목으로 염색한 적색은 목홍으로 불리며 염색법은 「천공개물」에 “목홍색은 다목을 삶은 물에 명반과 오배자를 넣어 염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임원경제지」에는 소홍, 반홍이라 하여 괴화를 선염하고 후염으로 복합염하는 법이 소개되어 있다.

소목은 대표적인 다색성 염재로서 끓여서 보면 주황색이나 화학물질과의 반응이 민감하여 매염재에 따라 황, 적, 자, 흑색으로 고루 발색된다. 소목의 이러한 점은 대상에 따라 인자함, 근엄함 등의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사람과 같아서 어떤 매염재를 만나는가에 따라 그 색이 아주 다르다.

소목으로 먼저 염색하고 황색염료로 후염을 하거나 황색염색을 먼저하고 소목으로 후염을 할 경우 누른끼를 띤 밝은 적색으로 발색되어 색감이 아주 좋다. 함께 쓰면 좋은 염료는 울금, 황백, 황련 등이고 양과 곱질도 좋다.

다. 쪽두서니

쪽두서니는 봄이나 가을에 뿌리를 캐서 약재나 염재로 쓴다. 「임원십육지(서유거, 서울대출판부)」에는 ‘친근은 쇠그릇은 피하고 두들겨 갈아서 백반을 넣어 천을 염색하면 그 색이 심히 선명하고 색이 오래도록 변치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생식물 염재로 붉은 색이 나오는 것은 홍화와 쪽두서니뿐이다. 80이 넘는 노인 분들을 만나 염색에 관한 채록을 하다보면 분홍빛을 띤 빨간색을 쪽두서니 색이라고 한다. 말만 들어도 반가워서 그것으로 직접염색을 해보셨는가를 다잡아 물으면 한결같이 그런 적은 없다고 하셔서 늘 안타까웠다. 쪽두서니는 덩굴만 무성할 뿐 뿌리는 얼마 되지 않아 균락을 찾지 않으면 양이 적어 해볼 수가 없다.

염색할 때 쪽두서니는 100℃로 끓이면 색이 변하므로 증탕을 해 주어야 하며 몇 번을 우려내어도 색소가 다 추출되지는 않는다. 바로 캔 쪽두서니를 쓸 때는 나무공이로 찢어서 명반과 함께 가볍게 달여 들인다. 건재의 질에 따라 색감이 많이 차이 나고 매염제나 직물에 따라서도 색이 조금씩 다르다.

(3) 청색계

가. 쪽

청색은 쪽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색을 만지는 이라면 쪽 염색법은 필수과정이다. 쪽은 여름철에 생산되므로 여름이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봄, 가을에 하는 경우도 많다. 그 이유는 쪽 풀의 푸른색소인 인독실이 인디고로 발색될 때 염색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공기산화를 해주면 색이 곱기 때문이다.

쪽은 제철에 생 잎을 갈아 쓰는 법, 삶아서 하는 법, 우려낸 염료에 잣물을 넣어 바로 하는 법, 니람을 만들어 하는 법 등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전통염색법중 그 이용법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이다.

요즘은 거래가격이 비싸서 일반인은 만지기 어려운 쪽 염이지만 30~40년전만해도 어지간한 대갓집에는 필수적이었던 점과, 홍색 염직물의 값이 청색 염직물보다 세배나 비쌌다는 옛 기록을 보면 그 과정만 정확히 알면 기술이전이 비교적 쉽다는 이야기도 된다.

쪽 염색법은 지역별, 개인별로 차이가 많다. 채록을 다니면서 수집한 옛날의 염색직물은 백년이 지난 지금도 청보라 빛을 띠고 있어 지극히 곱다. 근래에 보급된 왜 쪽과 염색법으로는 그만한 색감을 얻는 게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쪽 풀은 여과에 속한 것으로 호남 지역에서 많이 했다. 영남지역에서는 식물의 분류상 과(科)가 다른 품종을 재배하여 썼다고 하나 지금은 멸종되고 없다.

쪽염은 잣물을 가장 중요시한다. 쪽대나 명아주대, 다복쪽 대궁이를 태워서 그 재를 뜨거운 물로 내린 진한 잣물을 사용하면 색이 잘 인다고 하였다. 또한 염액보다 낮은 온도일 때 탁한 녹색 빛깔이 청색으로 곱게 발색되는데, 옛날에 직접 하시던 분들의 이야기로는 제대로 잘 든 청보라 색의 쪽 물을 색상 중에 가장 기품 있는 색이라고 하며 「양색(兩色)이 진다」 라고 말

한다.

쪽염의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것은 따라하려는 이에게 모호함이 많아 무모한 일이다 싶은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한다. 염색과정이 수치화, 계량화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면 감(感)으로 하라는 말에 처음 접하는 이는 답답해지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능은 이론과 달라서 언어라는 기호가 되면 날이 무딘 칼날이 되어버리는 때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쪽물은 강알칼리성이어서 무명, 삼베, 모시 등의 셀룰로오스 섬유나 이들을 합하여 교직으로 짠 아롱지 등에 많이 이용했다. 제대로 발효된 쪽으로 물을 들이면 색이 잘 빠지지 않으나 충분히 행귀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어도 탈·변색이 심하고, 마찰 견뢰도가 나쁘다. 이것을 막으려면 흐르는 물에 2~3일 담가 두어 알칼리 성분을 완전히 빼주어야 한다.

김치나 식혜를 담그는 방법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맛을 제대로 내려면 정성을 다하여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다. 음식의 간을 볼 줄 알게 되면 비로소 맛을 낼 수 있듯 쪽염도 간을 볼 수 있어야 제 색이 난다. 쪽염은 숙련된 작업자의 감각 정성과 솜씨의 결정판이다.

(4) 흑색계

가. 단풍나무

들풀이나 산자락의 초목들은 여름동안의 빛 에너지를 한껏 머금은 가을이면 온 산하가 모두다 염료 밭이 되고 어느 것을 쓰더라도 제 나름의 색감이 넉넉하게 풀려 나온다.

단풍나무과 식물들의 잎은 우리 서민들이 많이 써오던 훌륭한 염재였다. 늦게까지 청색을 띠는 신나무, 청단풍, 고로쇠, 당단풍 등은 비슷한 색을 보이는데, 이 잎들이 가지고 있는 색소와 탄닌성분이 황색, 흑색 계열로 발색이 된다.

전통적인 염색법은 항아리 바닥에 무쇠 동강을 넣고 푸른 이파리와 물을 채워 돌로 눌러준다. 기온에 따라 3일 내지 보름정도 방치해 두었다가 그 물을 따라내어 젖은 무명천을 담가두거나 생잎을 무쇠 솥에 삶아 그 물에다 소금을 넣고 삶는 방법이 있다.

이 염색법은 일제말엽과 전쟁 후 물자가 귀하던 시기에 무명이불이나 치마, 바지 등을 물들였던 방법으로 어느 지방 할 것 없이 다 했었다.

나. 밤나무

밤나무는 염재로서 버릴 것이 하나 없다. 가시송이, 나무의 수피, 잎, 알밤껍질 등 아주 훌륭한 염재이다. 봄에 벌채나 가지치기를 한 나무에서 수피를, 여름엔 잎을, 가을엔 밤송이를, 겨울엔 알밤껍질을 쓸 수 있으니 밤나무에서 얻는 염재는 그 이용시기도 전천후이다.

전통적으로는 나무껍질을 많이 이용했지만 뽕나무를 쓸 때 이야기고, 껍질을 쓰자고 나무를 죽일 수는 없으니 행여 잘린 나무를 만나면 물이 마르기 전에 바로 벗겨야 된다. 나무껍질을 곧바로 끓여서 쓰면 좋으나 여의치 않을 땐 말려두었다가 써도 된다.

잎은 빛을 많이 받은 싱싱한 것을 따서 쓰고, 밤송이는 떨어진 직후의 것이 좋으며 비를 맞

하지 않으면 오래두어도 괜찮다. 밤껍질은 많이 모으기가 어렵지만 밤 가공공장에서 버리는 것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것은 물에 담가두었다가 벗긴 것이라 색상효율이 많이 떨어지지만 시간을 넉넉히 잡으면 그리 큰 문제는 없다.

다. 진달래 나무 숯

숯 염색은 승가에서 많이 했던 방법이다. 숯은 보통 불이 막 사월 즈음 물을 뿌리거나 재를 덮어서 만든다. 염색할 숯을 만들려면 물을 뿌리기보다 숯불 상태일 때 항아리에 담아 공기가 통하지 않게 뚜껑을 꼭 덮어서 한나절 지난 뒤에 꺼내는 것이 좋다. 적은 양이면 분마기에 갈고, 많은 양이면 절구에 넣어 곱게 빻는다. 고운 체로 쳐서 덩어리가 없도록 가루를 만들어 사용한다.

진달래뿐만이 아니라 철쭉, 영산홍의 뿌리도 괜찮다. 이들의 뿌리는 다른 나무에 비해 결정이 고운 편이어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채록을 다녀보면 참숯을 쓴 집도 있는데 얼룩이 심해서 고운 베는 못하고 무명베 바지, 승복 등에만 했다고 한다.

숯으로 염색할 때 직물을 비틀어 짜면, 짜낸 자국이 그대로 얼룩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염액의 양을 많이 준비하여 넉넉한 물에 오래 치대어서 염색하는 것이 얼룩을 줄이는 방법이다. 숯 염색 역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데, 숯이나 황토는 염료라기 보다는 안료(顔料)에 가깝다.

라. 먹물

먹물염색은 불가에서 소유와 집착을 버린다는 정신적 가치가 더 중요시되는 색으로 아낌을 받지만 더러움을 잘 타지 않는다는 실용적인 면까지 있어서 매력적인 염재이다.

고운 먹을 갈아서 미지근한 물에 희석시켜 천을 고루 적셔 뒤적인 후 바짝 말린다. 그런 다음 식초물에 삶고 헹구어서 다시 말린 후 종이에 싸서 열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색감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다. 품질이 좋지 않은 먹이나 먹물로 제조된 것을 쓰면 먹물 특유의 광택이 없고 색감이 선명치 못하다.

(5) 간색계 및 그 외

가. 간색계

간색이란 오방색(五正色) 중 두 가지 색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색으로 녹색(綠), 벽(碧), 유황(驪黃), 자(紫), 홍(紅) 다섯 가지 색이며 이를 오간색(五間色)이라 한다. 청과 황의 간색은 녹색, 황과 흑의 간색은 유황, 흑과 적의 간색은 자색, 적과 백의 간색은 홍색, 백과 청의 간색은 벽색이다. 간색의 이론적인 정의와 실제 염색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일종의 개념적인 분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염장이 염색을 할 때는 위의 다섯 가지 색채조합보다 단일 염재로 간색을 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벽, 홍, 유황색은 단일 염재로 색을 낼 때가 더 쉽고 자색의 경우도 흑과 적의 결합보다 청과 적의 복합염이 더 많기 때문이다. 간색의 원

칙을 쓴 경우는 녹색이 가장 많은 편이다.

간색을 만들 때 주의 할 점은 물들이는 순서이다. 옅은 색에서 짙은 색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지만 천연염색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산이나 알카리에서 발색이 되고, 직물과 염료의 결합이 결합제를 쓰는 화학염료처럼 완벽하지 못한 염색 상황과 공정 때문이다. 먼저 한 염색공정과 후염의 공정이 일치하지 않을 땐 먼저 한 색상이 모두 빠져버리거나 변색이 되어 버리므로 순서를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다. 녹색의 경우 청색이 먼저 염색된 뒤에 황색염을 해주는 게 원칙이고, 유향의 경우는 황색이 먼저 되고 흑이 염색되어야 한다. 자색의 경우는 흑이나 적 중 어느 것이라도 비슷하다. 벽색과 홍색은 백색과의 결합이다 보니 실제 염색에서는 청의 옅은 색, 적의 옅은 색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색상이 두 가지의 염재로 만들어지는 사전적인 의미만으로 정의한다면 간색을 복합 염으로 확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천연염색(오방색 및 오간색, 기타 옛 복식의 색채) 색채 표준화가 미처 되지 않은 상황과 설사 표준화가 될지라도 객관성, 당위성에 많은 난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나. 자초

식물에 들어 있는 색은 밖으로 보이는 것과는 판이하게 달라서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시기와 과정과 상황이 있다. 한가지의 풀은 제대로 쓸수 있는 기간은 일년에 15~20일 정도 뿐이다. 65세까지 살아서 건강하게 일한다 할지라도 한가지의 풀을 제대로 보는 데는 서른 해 남짓, 서른 번 남짓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풀과 함께 하는 염색장의 일년은 매년 보름단위로 가버리는 것이어서 매양 바쁘다.

자초 등에서 나오는 자색은 한 가지 염재로 염색하는 방법과 적과 흑을 복합하여 들이는 간색 법이 있다. 한 가지 염재로 들이는 자색은 자초와 보라조개(군소)로만 가능하여 화학염료가 나오기 전에는 아주 비싼 값으로 거래되었다. 자연 몇몇 소수만이 보라색을 누릴 수 있다보니 서양에서는 귀족의 색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자초는 질이 좋은 관계로 염색한 직물의 색상이 고와서 고려시대 때부터 주요 수출품이 되기도 하였다 한다.

자초는 야산에 자라는 양지식물로 예전에는 흔한 약초였으나, 산이 짙어진 요즘에는 아주 귀한 식물이다. 5~6월 중의 시골 장에 가면 가운데에 자주색 점이 박힌 생 자초가 더러 보이지만 1근에 3~10만원으로 값이 비싸니 그것을 염재로 쓰기가 쉽지 않다. 수입자초의 경우 자초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열풍고온 건조가 많아 발색 색상이 아주 다른 경우가 많다. 자초의 원래 색상은 자주빛이 정상이므로 생 자초를 구하여 쓰면 그 색을 얻을 수 있다.

다. 감

사위가 조용한 오월 늦은 밤, 수은등에 역반사되는 감 이파리색과 나무꼭대기에 매달린 동짓달의 서리 맞은 홍시색은 기가 찬다. 늦봄에 새부리처럼 반짝이며 불그스레한 빛으로 울

라오는 이파리, 병아리색을 닮은 감꽃, 네 잎의 꽃받침을 달고 떨어지는 엄지손톱만한 별똥 감, 잎새의 색과 똑같이 푸르러지는 땡감, 뺨을 노릇노릇 물들이다 종내 속이 빨갭게 익은 홍시, 그 어느 것 하나도 모자라는 색감이 없다. 먹구름, 뭉게구름과 여름 내내 친구하다가 늦가을 파란 물빛 바람을 만나면 감은 색의 정점인 기명색(起明色)으로 빛나는 노래를 부른다. 이렇듯 감칠맛 나는 색상의 향연을 보여주는 나무가 그리 흔치 않다.

감 염색은 땡감부터 홍시까지 가능하며 시기에 따라 색상이 차이가 난다. 감 염색은 안팎의 색상이 달라야 진품이며 보통비누로 빨면 검은색으로 색이 퇴화되는 단점이 있다. 필자는 감을 이용해서 문양염을 많이 하는데, 단색을 오래한 뒤 감의 성질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야 응용이 가능하다.

3. 전통미감을 살리는 천연매염제

염색을 하여 보면 화학매염제를 사용했을 때와 천연매염제를 사용했을 때의 색감은 확연히 다르다. 천연매염제를 사용하여 염색했을 때 우리의 전통미감이 살아남을 경험으로 늘 접한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 매염제(철장액과 동액)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철장액을 만드는 방법은 무쇠동강을 빙초산용액(물 2ℓ에 15~30cc 넣은 것)에 넣고 상온에서 1주일을 방치하면 쇠물이 우러나는데 이것의 윗물을 철장액이라고 한다.

동매염제 역시 철장액을 만드는 방법과 같은데 무쇠동강 대신 동선이나, 십 원짜리 동전을 빙초산 용액에 담가 두었다가 그 윗물을 쓰면 된다.

4. 염색시 유의점

어떤 염재로 하던지 간에 한 번으로 염색을 끝내지 말고 최소한 3회 이상 10여회까지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자잘한 얼룩들이 없어진다.

농색의 염료에 담구어서 생긴 얼룩은 없애기가 무척 어렵다. 얼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는 염액을 충분히 준비하여 직물이 고루 폭 잠기도록 하는 것, 회수를 반복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직물을 비누로 씻어서 젖은 상태로 준비할 것 등이 있다.

5. 맺음말

사람만이 가진 손으로 무엇을 만든다는 창조적 행위를 함으로서 주어지는 충만감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큰 축복이다. 맛을 본다(吟味), 소리를 본다(觀音)는 말이 있듯이 손으로 만 들고 마음으로 보는 일, 그것이 천연염색으로 가능함을 알게 되는 것은 무한한 기쁨일 것이다.

옛 사람들은 한 곳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가장 중히 여겼다. 한 우물을 깊이 파고 들여다보면 만물의 이치가 환히 보이는 물리(物理)가 트인다고 한다. 넓게 끌고루 다하려다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다. 천연염색에서도 모든 염재를 다하겠다는 생각보다 어느 하나의 염재, 한 가

지 색상은 확실하게 하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연후에 그 염재가 가진 성정을 최대한 살려 한 면 위에 모두 쏟아 놓은 문양, 회화염으로 자신의 심미감을 표현할 때 환희심을 맛 볼 수 있으리라.

회화적인 작업으로 넘어가면 천연염료가 가진 장점이 가장 아름답게 꽃핀다. 자연에서 얻어진 염료는 순리를 가르친다. 천연염료는 더 큰 색이 오면 물러날 줄도 알고 겹쳐지면 다소곳해 질 줄도 안다. 그래서 연하다는 맥빠진 색이 아닌 은은한 깊이를 가진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